"공부로 보답할게요"

민사고 김찬미양에 후원 '밀물'

광주일보 보도 후 독지가 10명 나서

"의료 봉사자로 성장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후원자 장학제도를 통해 영재학교인 민족사관고에 입학했으나, 후원금이 끊겨 학업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던 김찬미(16·사진)양이 본보 보도 이후〈4월 15일자 7면〉 새로운 후원자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찬미양은 올해 광주·전남지역 중학교 졸업자 중 영재학생으로 발탁돼 자율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에 진학했다.

22일 민족사관고에 따르면 최근 찬미양의 보도 이후 광주·전남에서 후원 의사를 밝힌 독지가만 1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N씨는 민사고측에 찬미양이 졸업할 때까지 매 분기마다 40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익명을 요구한 N씨는 우선 찬미양의 밀린 1학년 1분기 학비 400만 원을 지원했다.

민사고의 1분기 학비(기숙사비 포함)는 400만 원 정도이며, 3년 간 (12분기) 모두 5천여만 원의 학비가 들어간다. N씨는 이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 2명도 각각 200만 원씩을 보내왔다. 이 외에도 3~4명이 후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사고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은 분들이 후원자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찬미양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한 찬미양은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불안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좋은 교육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활짝 웃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체육회 직원들이 22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 '2015하계 U대회 광주 유치기원을 위한 걷기대회'에 앞서 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U대회 유치 시민 열망 하나로"

광주시체육회 걷기대회 … 유치 홍보·붐 조성

"체육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한다면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 체육회 임직원들이 22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 일원에서 2015하계 U대회 광주 유치기원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 시민들에게 U대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직원 5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염주체육관~풍암저수지~서구문화센터~원광대 한방병원 4거리를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 U대회 광주 개최 의의를 설명하고 광주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했다.

이들은 '2015하계 U대회 광주 유치기원' 문구를 새긴 플래카드와 어깨띠, 모자를 쓰고 행사에 참여해 U대회 유치를 염원했다.

시 체육회 직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다음달 23일 U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광주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한데 모으는 한편, 'U대회 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장종대 광주시 체육회 시설관리부장은 "U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염원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체육회와 체육인들이 U대회 홍보를 생활화함으로써 U대회 유치 붐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 체육회는 오는 5월에는 U대회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나눠주고, U대회 개최 후보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확립운동도 펼칠 방침이다.

체육회는 그동안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에 맞춰 U대회 관련 체육시설 인프라 보수·점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FISU실사단으로부터 체육 인프라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용기 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광주시가 도시브랜드를 높여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U대회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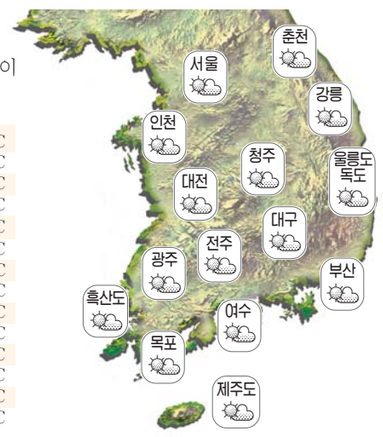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1분 해짐 19시 41분 달뜸 04시 19분 달짐 17시 19분

살랑 살랑 봄바람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맑은뒤 흐림	7/24℃
목 포	맑은뒤 흐림	8/20℃
여 수	맑은뒤 흐림	10/20℃
완 도	맑은뒤 흐림	8/21℃
구 례	맑은뒤 흐림	4/24℃
해 남	맑은뒤 흐림	5/22℃
장 흥	맑은뒤 흐림	4/22℃
고 흥	맑은뒤 흐림	5/22℃
순 천	맑은뒤 흐림	8/23℃
영 광	맑은뒤 흐림	4/20℃
진 도	맑은뒤 흐림	6/21℃
전 주	맑은뒤 흐림	5/21℃
남 원	맑은뒤 흐림	3/18℃
흑산도	맑은뒤 흐림	9/18℃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남동	0.5~1.0m
먼바다	북~남동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남동	0.5~1.5m
먼바다	북~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39 12:54	06:06 18:19
여수	07:49 20:12	01:35 13: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날 씨						
최저/최고	12/17	11/15	7/18	7/20	8/22	8/24

광양제철 등 3곳 '대기오염' 적발

전남도 동부출장소는 22일 광양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벌여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광양시와 함께 지난달 23~26일 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광양제철소는 대기배출시설의 부식 및 마모로 인해 일부 먼지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돼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석회를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먼지를 외부로 누출시킨 광양지역 P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을 폐쇄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B업체는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변호사회·전남대 로스쿨

"변호사 직무영역 침해 저지 총력"

광주변호사회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국회에서 추진중인 '변호사 영역 쪼개기' 관련 법률안의 입법을 막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2일 광주·전남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변호사회는 최근 이철환 원장 등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직역(직무영역) 침해법안'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허침해로 인한 민사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공동소송 대리권을 갖는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에게 변리사·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개정안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주는 법무사법·소액사건심판법 등을 변호사 직역 침해법안으로 꼽았다.

두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변호사 업계와 로스쿨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철환 전남대 로스쿨원장은 "대다수 로스쿨에서 특허 및 지적재산권과 세무 등을 특화해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려 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법안들이 통과되면 특성화 교육과 로스쿨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영대 광주변호사회 회장은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되레 변호사 직무를 쪼개는 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사분위 회의…조선대 긴장 고조

교수·학생·교직원 등 300여명 상경 집회

전국 88개大 교수 775명도 "정상화" 성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23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선대 임시이사 재파견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수와 학생, 직원 등 300여명은 23일 오후 2시 열리는 사분위 회의에 맞춰 상경 집회를 갖는다. 이들은 사분위와 교과부에 임시이사 재파견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조속한 정이사 선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시이사 재파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동참하는 교수들도 연일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 전국 59개 대학 159명과 조선대를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29개 대학 교수 616명 등 전국 88개 대학 교수 775명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조선대학교 정상화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교과부의 행보를 주시하며 연대해나갈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선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명단으로 임시이사를 재파견함으로써 비리재단의 복귀를 돕는다면 광주·전남 교육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가 임시이사 재파견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조선대의 정상화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이버안전의 날 행사 국정원 광주지부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는 23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제5회 광주·전남 사이버 안전의 날 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공공기관과 첨단산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정원 광주지부의 해킹 시연에 이어 정석원 목포대 교수가 '온라인거래 보완 취약점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특강한다.

국정원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사이버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자치행정 홍보박람회 광주 서구 大賞

광주시 서구가 '2009 광주·전남 자치행정 홍보박람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서구는 광주·전남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박람회에서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개설과 광클린 악취제거제, 풍암저수지 주변 웰빙 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특화사업을 펼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많이 보고 배웠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익과 경쟁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국회의원		이윤석	
무안군청		직원일동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	
무안군의회	부의장	임덕수	
무안군의회	의원	김천성	
무안군의회	의원	이요진	
무안군의회	의원	양영복	
무안군의회	의원	김산	
무안군의회	의원	김관형	
초당대학교	총장	김병식	
무안교육청	교육장	박남영	
무안경찰서장		문점호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지사장	남기신	
목포무안신안축협	조합장	나상옥	
무안군산림조합	조합장	최옥수	
농협중앙회	무안지부장	이재광	
청계농협	조합장	박장규	
무안농협	조합장	노은준	
일로농협	조합장	이수용	
몽탄농협	조합장	장용민	
운남농협	조합장	문인식	
삼향농협	조합장	나용석	